

## 두 아이\_광주 연작 3



**이경혜 지음**

변형판 (110\*180) | 140쪽 | 값 12,000원

발행일 | 2026년 5월 18일

펴낸곳 | 바람의아이들

분야 : 단편소설, 청소년소설, 역사소설

주제어 : #5.18 #광주 #송암동 학살 사건 #스페인 내전 #게르니카 #역사 #죽음 #기억

### ■ 책 소개

작가 이경혜가 5.18 당시 희생된 어린이와 청소년 인물의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펴내는 ‘광주 연작 시리즈’. 광주 연작 세 번째 책 『두 아이』는 마을 선산에서 놀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전재수 어린이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작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비극적 사건 그 자체를 주목하는 대신 죽음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하고 희생된 아이에게 편안하고 따스한 놀이로 가득한 사후 세계를 선사한다. 너무 일찍 삶이 끝나버린 어린이들에게 실컷 놀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주며 어린 넋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의 재봉이와 스페인 게르니카 폭격 사건의 희생자 마르코가 만나 친구가 되는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아프게 되새긴다. 재봉이와 마르코, 영문을 모르고 죽어간 두 아이는 실컷 놀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안식에 이르게 된다.

### ■ 활동 목표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
- 5.18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스페인 내전과 게르니카 폭격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 역사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 독서 계획

단계	주요 활동
읽기 전	책 표지 살펴보기, 제목 예상하기, 표지 그림의 의미 상상하기
읽기 중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인상 깊은 구절 찾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 나누기, 토의 토론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읽기 후	관련 정보와 동영상 찾아보기, 5.18과 스페인 내전에 대해 알아보기, 피카소 그림 찾아보기,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생각해 보기

### ■ 책을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살펴보며 제목, 그림, 책날개와 뒤표지에 적힌 글 등을 살펴보며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글쓴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짐작해 본다.

#### 1) 책 표지 살펴보기

-표지 그림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2) 제목 예상하기

-제목을 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두 아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결말이 예상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3) 소개 글을 통해 내용 예상하기

-뒤 표지에 실린 소개 글을 읽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예상해 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졌나요?

#### ■ 함께 책을 읽으며

\*책을 함께 읽고, 생각과 의견을 나눈다.

##### 1)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짜과 번갈아 가며 읽어 보세요.

-역할을 정해 읽어 보세요.

##### 2) 인상 깊은 구절 찾기

-읽는 동안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간단히 써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인상 깊은 구절을 읽어 주세요.

### 3) 자료 조사하기

-80년 5월에 일어난 송암동 학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스페인 내전과 게르니카 폭격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 4) 이야기 나누기

-스페인 내전과 게르니카 폭격 사건,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비교해 보세요.

-재봉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뒤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재봉은 마르코를 보며 물었다.  
 “저 아저씨가 왜 나를 쫓지? 내가 그렇게 환영하며 만세를 불렀는데? 북한군 총에 맞으면 몰라도 국군 아저씨가 왜 나를 쫓?”(p.60)

-작가가 죽은 사람은 자기를 죽인 사람 얼굴을 알게 된다는 대목을 써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코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래. 너를 죽인 사람 얼굴은 알게 돼.  
 그 사람은 자기 총알이 누구를 죽였는지 몰라도 넌 알게 되지.”  
 재봉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 아저씨 옷이! 저 아저씨, 세상에, 저 아저씨 국군 아저씨야!” (p.59)

-작가가 이야기 속에서 재봉이와 마르코를 만나게 한 이유는 무엇이였을지 짐작해 보세요.

### 5) 중심 내용 파악하기

-구름나라에 처음 온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르코가 재봉이를 만나고 43년 전 일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재봉이가 총에 맞는 까닭은 무엇이였을까요?

### ■ 책을 다 읽고 나서

-책 뒤에 실린 5.18광주민주화운동 해설을 읽고 더 궁금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청소년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사실을 다룬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와 '한국에서의 학살'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역사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이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